

研究論文

현대 국어 부사 ‘골고루’의 어휘사*

이 광 호**

I. 머리말	IV. 근대국어 파생부사 ‘고로, 고로랏 골
II. 현대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均 와 오로)’	부사 ‘고루, 고루 고루, 골고루
III. 중세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均 와 부사파생 접미사 ‘-오우’	V. 현대국어 부사 ‘골고루’의 축약 원인
	VI. 맺음말

I. 머리말

세상의 모든 어휘는, 그것이 어떤 언어이든 간에 어느 시기에 생성되어 쓰이다가 또 다른 시기에 변화되고 또 그 변화를 거쳐 소멸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어휘는 그것이 길거나 짧거나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등재된 하나 하나의 표제어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쓰이게 된다. 좁게는 한두 가지의 의미나 기능을 가지기도 하고 넓게는 열 몇 가지의 의미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어떤 표제어는 그 어원은 같으나 각각 다른 품사의 낱말로 분화되어 각각 다른 통사기능을 갖기도 한다. 그 한 예로 현대국어 부사 ‘함께’는 국어의 역사에서 매

* 본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년도 연구과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국어학 전공.

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변화과정이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이기문¹⁾이 구체적으로 밝혔듯이, 이 ‘함께’는 15세기 국어에서 ‘흔씩’(一時)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관형사 ‘흔’(一)과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씩’(時), 그리고 처격조사 ‘의’가 결합된 것으로 16세기 초엽의 ‘흙씩’²⁾를 거쳐 현대국어에 이른 단어이다.

그러니까, ‘흔씩’에서 ‘흙씩’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두자음군 ‘ㅁ’의 ‘ㅂ’이 발음 되었기 때문에 ‘흔’의 ‘ㄴ’이 ‘ㄹ’으로 동화되었다는 귀중한 음운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두 모음 사이에서 ‘ㅁ, ㅂ, ㅅ’이 발음될 수 없었기 때문에 ‘ㅂ’이 탈락되어 ‘흙씩’³⁾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현대국어 부사 ‘골고루’가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형용사 어간 ‘고르’(均)에서 기원했다⁴⁾고 할 수 있는 파생부사 ‘고루’, 그리고 이것이 첩용된 ‘고루 고루’와 이것이 다시 축약된 준말 ‘골고루’ 등의 역사를 밝히고자 한다는 것이다.³⁾ 현대국어 부사 ‘고루, 고루 고루, 골고루’는 중세국어에서 ‘골오’, 근대국어에서 ‘고로’, ‘고로 고로’⁴⁾, ‘고로랴(골오랴)’ 등의 선대형

1) 이기문, 『국어음운사연구』(국어학회, 탑출판사, 1990), 59쪽, 이기문 『신정 국어사개설』(태학사, 1998), 146쪽

2) 본고에 대한 논평에서 황문환 교수는 “현대국어에서 ‘고르’는 형용사로 쓰일 뿐이고 타동사로는 ‘고루’ 형태가 쓰인다. 비슷한 어형 분화가 ‘바르’(형용사)와 ‘바루’(타동사)의 예에서도 발견된다. 연구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루’ 내지 ‘바루’의 내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형용사 어간 ‘고르’, ‘바르’에 사역동사 파생 ‘-오/우’가 접미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부사 파생 접미사 ‘-오’와 그 형식이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형용사 ‘고르’(均)에서는 부사 ‘골오(고로), 바로’가 파생된 것이 타동사 어간 ‘고루, 바루’가 그대로 부사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이병근은 ‘질경이(車前草), 마름(菱) 등 여섯 개의 어휘사를 밝힘에 있어 문헌상에 보이는 어휘를 비롯하여 방언형 등 매우 구체적인 어휘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하여 본고는 그렇지 못한 것을 밝힌다. 이병근이 다룬 어휘사는 그 대상이 명사이기 때문에 문헌 자료 및 방언에 따라 나타난 어휘의 양상이 매우 복잡한 것이었으나 본고의 부사 ‘골고루’는 문헌자료에서조차도 비교적 몇 가지 양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구체적인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다. 이병근 『어휘사』(태학사, 2004).

4) 중세국어의 파생부사 ‘골오’의 첩용부사 ‘골오 골오’는 중세국어 문헌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근대국어에서 ‘고로’로 실현되고 이 부사가 첩용되어 ‘고로 고로’로 실현되는데 이런 첩용부사 또는 첩용 명사등의 예는 언제나 생산적인 편이 못되는 듯하다. 곽, “그만그만 말하(悄悄說)”(『동문유해』 상, 24b), 삽죽삽죽(抽抽搭搭)(『한청문감』 8, 24a), 구물구물하는 衆生(『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13a), 굽슬굽슬흔 털(捲毛)(『역어유해보』, 49a), 므디므디 幻兒(節節之幻)(『원각경언해』

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II. 현대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均)와 부사 ‘고루, 고루 고루, 골고루’

반드시 긴 역사적 변화를 겪었겠지만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현대국어 부사 ‘고루’, ‘고루 고루’, ‘골고루’는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에서 그 예의 일부가 확인된다. 중세국어의 부사 ‘골오 5)와 같이 현대국어의 이 부사는 현대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형용사 어간 ‘고르-’의 선대형(先代形)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에 중세국어 부사파생 접미사 ‘-오’가 통합됨으로써 만들어진 ‘골오’가 몇 가지 변화과정을 거쳐 ‘고루’가 되고, 이것이 다시 첩용되어 ‘고루 고루’가, 그리고 이것이 축약되어 ‘골고루’가 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서 형용사 어간 ‘고르-’(均)와 분명히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사 ‘고루, 고루 고루, 골고루’의 공시적 의미와 생성 관계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1)에 사전적 해석을 제시한다.

(1) 어간 ‘고르-’ 및 ‘골고루, 고루, 고루 고루’의 사전적 해석⁶⁾

(가) 고르다³⁾(골라·골라서)(圓(르)① 높거나 낮거나 많고 적음이 없이 한결 같다. 생활 정도가. ② 정상적이고 순조롭다. 엔진소리가. / 고르지 못한

상1, 47a), 보드라와 노흔노흔하니(弱弱弱)(『두시언해 초간본』 10, 9a), 므디므디 쓰는 재(『가례언해도』, 18a), 광칙 번듯번듯(光輝閃閃)(『한청문감』 10, 67a), 時節이 어른어른 가(『두시언해 초간본』 10, 36a), 징강징강(銅鐵玉相碰聲)(『동문유해』 하 57a), 제금제금(各人各人)(『한청문감』 8, 58a), 자맛 구슬와 촌촌맛 구스른 體體 흐워흐워하며(尺璧寸珠體具溫潤明)(『금강경삼가해』 4, 50b), 흐늘흐늘하다(顛)(『한청문감』 7, 45b), 흔들흔들하다(顛動)(『한청문감』 7, 45b) 등등이 그 예이다.

5) 이기문이 언급한 ‘오’의 적극적인 기능에 따라 ‘알어든, ‘알오, 사동형과 피동형의 ‘오우’ 등은 받침 ‘르’이 연결되지 않거나 유음화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중세국어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도 그런 기능을 가진 ‘오’의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문 앞의 책(1990), 19-17쪽, 이기문, 앞의 책(1998), 143쪽.
6) 이기문(갑수), 『동아 새 국어 사전』(동아출판사, 1989).

날씨에 몸 조심 하여라.

(나) 골고루^㉑ <‘고루고루’>의 준말

(다) 고루^㉒ 더 하고 덜하거나 많고 적음이 없이. 고르게. -나누다. / -부담하다.

(라) 고루-고루^㉓ 여럿이 모두 고르게. ㉑골고루.

형용사 ‘고르다’와 의미의 직결성을 가지고 있는 위 (1)-(나)의 부사 ‘골고루’는 (1)-(다)의 ‘고루’를 기본형으로 하고 이것이 첩용부사로 생성된 (1)-(다)의 ‘고루고루’의 준말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고루’의 기본 의미가 ‘고루 고루’로 되풀이됨으로써 그 뜻이 ‘여럿이 모두 고르게’로 풀이 되고 이것이 준말이 되어 실현된 것이 ‘골고루’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공시적인 의미에서 (1)의 (나), (다), (라)는 대체로 ‘고루→고루 고루→골고루’의 생성과정을 거쳤다고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골고루’와 ‘고루 고루’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루’는 현대국어의 부사 ‘마주’(迎), ‘도루’(廻), ‘거푸’(疊) 등과 같이 용언 어간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가 연결된 파생부사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국어 부사 ‘고루, 마주, 도루, 거푸’ 등은 각각 형용사 어간 ‘고르.’(均), 동사어간 ‘맞.’(迎), ‘돌.’(廻) 및 중세국어의 동사어간 ‘골푼.’(疊) 등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가 연결되어 생성된 부사라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인 것으로 중세국어에서 각각 ‘골오, 마주, 도로, 거푸’ 등으로 실현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골고루’의 기본형 ‘고루 고루’와 이것의 원형인 ‘고루’의 역사를 밝히고, 이것을 중심으로 또 다른 단어의 모습을 보이는 ‘고루 고루’, ‘골고루’ 등과 관련된 ‘고로, 골오로, 고로로’ 등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한다.

III. 중세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均)와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

안병희,⁷⁾ 이승녕,⁸⁾ 이기문,⁹⁾ 고영근¹⁰⁾ 등이 이미 정확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7) 안병희, 「문법사」, 『한국문화사대계(V) 언어문화사』(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242 쪽

중세국어 부사 ‘골오’는 형용사 어간 ‘고르’(均)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통합되어 생성된 단어이다. 중세국어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하’ 등과 함께 이 ‘-오’는 ‘도로(돌, 廻), 나쇼(낚, 進), 오으료(오을, 畵), 기우랴(기을, 斜)’ 등의 예와 같이 파생부사 형성 접미사이었으나 중세국어에서와는 다르게 근대국어 이후로는 그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게 되었다. 다음 (2)에 ‘고르+ 오’에 따라 생성된 중세국어 부사 ‘골오’의 몇 예를 제시한다

(2) ‘고르+오’→‘골오’¹¹⁾의 예

- (가) 等은 골오 니르실씨라(『석보상절』 6, 45b)
- (나) 世界엿 싸히 다 뉘운 쓰디 업고 혼갓 다 뭐다흐면 값간 뉘 뒤 업시 다 골오 ㄱ장 뉘운 쓰디 업스릴씨(『월인석보』 2, 14a)
- (다) 花赤銅 곧흐사미 第一이시고 손뵈 가리기 두려우시고 ㄱ노르시고 골오 고드시고 보드라오시고(『법화경언해』 2, 14a)
- (라) 이베 외오고 ㄱ스매 行흐야사 定慧 골오 等흐느니 이 일후미 究竟이라 (口誦心行定慧均等是名究竟)(『금강경언해서』, 7b)
- (마) 이에 은혜엿 별례엿 것과 녹봉으로 주신 거슬 상네 권답의게 골오 주고 아오로 義田宅을 두니라(於是恩例俸賜常均於族人并置義田宅云)(『소학언해』 5, 80b)
- (바) 당당이 제여곰 즈라니와 저므니왜 맛당이 드외야 일로브터 쉰 비편이 골오 드외리라(應宜各長幼自此均勸勵)(『두시언해 초간본』 17, 13b)
- (사) 비는 흐 마스로 골오 짓고 螺는 흐 소리로 다 스뵈고 부픈 한 사르물 出습흐고 義는 맛당홀 야을 조차 여러 내느니 부텃 法을 가즐며 니르니라(『석보상절』 13, 26b-27a)

중세국어 파생부사 ‘골오’는 이미 중세국어 동사의 파생이나 용언의 활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부의 용언어간 ‘르’, ‘르’의 모음 ‘·’, ‘-’가 탈락되고 나머지 ‘르’이 선행어간에 받침이 된 예에 따라 실현된 어형이다. 예를 들자면 중세국어

8) 이승녕, 『중세국어문법: 15세기어를 주로하여』(을유문화사, 1981), 387~388쪽.
 9) 이기문, 앞의 책(1998), 163 쪽
 10) 고영근,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개정판(집문당 1997), 187~188 쪽
 11) 중세국어의 파생부사 ‘골오’는 근대국어의 그것과 같이 ‘고르’로 표기된 예가 없는 듯하다.

의 동사어간 ‘오르-’(上)에 사동파생 접미사 ‘-아’가 통합된 ‘올아-’(使上)와 부동사 활용어미 ‘-아’가 통합된 ‘올야-’(上), 그리고 형용사 어간 ‘다르-’(異)의 활용형 ‘달아-’, 동명사 ‘달음’ 등이 바로 ‘골오’와 똑같은 예라 하겠다.¹²⁾

이러한 용언어간의 특수 교체는 중세국어의 용언어간 ‘기르-’(養), ‘니르-’(講), ‘두르-’(圍), ‘막르-’(裁) 등등을 더 들 수 있다.¹³⁾

특수어간 교체에 해당되는 형용사 어간 ‘고르-’의 ‘골오’로의 파생은 이 어간 자체가 활용될 때도 ‘골오’이라는 어간 형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곧, “文과 質 왜 골아사 비르서 어루 일후물 그장 드윈 莊嚴이라 홀디니라(『금강경삼가해』 2, 61b), 情想이 골아 곧하면 느디 아니혀여(『능엄경언해』 8, 74b), 諸法에 골아 中에 맞게 홀씨라(『법화경언해』 2, 212a)” 등의 예에서 ‘골아사, 골아’가 그 구체적인 예이다.

‘골오-’이라는 특수어간에서 ‘오’의 음가 등에 대한 논의는 이기문¹⁴⁾에 미루기로 하고 단순히 ‘골-’만을 어간으로 간주한다면 중세국어 파생부사 ‘골오’는 결국 어간 ‘고르-’의 또 다른 교체어간 ‘골-’에 중세국어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세국어 파생부사 ‘골오’는 다음 (3)과 같은 생성과정을 거쳤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파생부사 ‘골오’는 기원적으로 ‘골-’이라는 또 다른 어간을 이루게 되고, 그것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3) 중세국어 부사 ‘골오’의 구성형식과 ‘고르-’의 교체어간 ‘골-’의 생성

(가) ‘골오’ : ‘고르-’(均)+‘-오’→골오

(나) 부사 ‘골오’의 어간 : ‘골-’(‘고르-’의 교체어간)

12) 이승녕은 ‘달야(異), ‘올야(升)와 ‘흘라(流), ‘글라(解) 등등을 ‘雙形’으로 규정하고 전자를 ‘新語幹活用’, 후자를 ‘舊語幹活用’으로 구분하여 그 설명내용이 다른 견해와 다르다 이승녕 앞의 책, 73~74쪽.

13) 이기문, 앞의 책(1998), 169쪽, 안병희, 앞의 논문, 200쪽,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 문법론』(학연사, 1991), 212쪽.

14) 이기문, 앞의 책(1980), 15~27쪽, 이기문 앞의 책(1988), 163쪽

예 (2)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중세국어 파생부사 ‘골오’는 그것에 후행하는 동사구를 수식하고 있다. 곧, 부사 ‘골오’는 (2)-(가)의 동사 ‘니르실 을 (2)-(나)의 동사구 ‘ㄹ장 뒤운 을, (2)-(다)의 형용사 ‘고드시고’를, (2)-(라)의 형용사 ‘등흐느니’를, (2)-(마)의 동사 ‘주고’를, (2)-(사)의 동사 ‘젓고’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IV. 근대국어 파생부사 ‘고로’, ‘고로로(골오로)’

1. ‘고로/고루’의 구성

(3)-(가)의 구조를 거쳐 생성된 중세국어 파생부사 ‘골오’는 근대국어에서는 ‘고로’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제내훈』(2, 13a)이나 『운음언해』(왕세자 책례후 운음, 4b) 등에서 ‘골오로’로 표기된 예가 있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이다.

이 부사 ‘고로’(드물게 ‘골오’)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세국어의 ‘골오’에서 선행 음절의 받침 ‘ㄹ’이 후행 음절, 곧 부사파생 접미사 ‘-오’에 연결 표기된 결과이다. 중세국어에서 분철 표기되었던 ‘ㄹ 이 이와 같이 연결 표기된 것은 이기문¹⁵⁾에 따르면 적극적인 기능의 ‘ㅇ’(음가는 ‘h’의 음성음 ‘fi’ 혹은 감^ㅁ)이 그 음가를 잃게 됨으로써 선행 음절 ‘골’의 받침 ‘ㄹ’이 후행 음절 ‘-오’에 연결된 결과임이 분명하다 하겠다(‘ㅇ’에 대한 적극적 기능, 소극적 기능에 대한 견해는 이광호¹⁶⁾ 참조). 다음 (4)에 근대국어 파생부사 ‘고로’의 예를 제시한다.

(4) 근대국어 파생부사 ‘고로’의 예

- (가) 초의예 노겨 즈을 밍들고 황단을 너허 고로 섯거 복그되(『마경초집언해』 하, 113b)
- (나) 은혜를 갑고져 하나 임의 고로 흐엿고(『어제경세문답』, 28b)
- (다) 족박 썩히고 붓지게 슬히 가로래 고로 퍼부어 쥬격으로 기여(『규합총서』, 113b)

15) 이기문, 위의 책(1980), 15~27쪽; 이기문, 위의 책(1998), 163쪽.

16) 이광호, 「후음 ‘ㅇ’과 중세국어 분출표기의 신해석」, 『소곡남풍현선생회갑기념논총』(태학사, 1995).

서』, 1b)

(라) 얼운의 옷과 밥을 흠이 혹 아니흠이 이시며(尊長衣食不均)(『소학언해』 6, 9a)

(마) 包ㅣ 能히 그치 누르디 못하야 그 지물을 혹 논홀식(包不能止乃中其財)(『소학언해』 6, 20b)

(바) 다 쇠니하며 노수흠에 치기를 혹 못하며(皆因衰羸老瘦蓄養失調)(『마경초집언해』 하, 39a)

(사) 다 텃기를 혹 흠을 일하며(皆因騎驟失調)(『마경초집언해』 하, 73b)

(아) 혼 디 혹 범으려 집불 쏘인 항에 너어(『규합총서』, 3a)

(자) 각국이 혹 난화 공용하게 혹고(『이언언해』 1, 9a)

(차) 만릭 지방이 우로지턱을 혹 넘으믈 보암 즉 혹리니(『이언언해』 1, 9a)

(카) 왕왕거려 내려와서 편신에 혹 안자 해산을 시작튼니(『수궁 별주부산증 토쳐사전』, 68b)

위 (4)와 같은 근대국어 부사 ‘혹’의 예는 중세국어 파생부사 ‘골오’의 또 다른 표기인 것으로, 이것은 마치 현대국어 ‘혹’의 첩용부사 ‘혹’과 같은 형식의 ‘혹 혹’을 생성시키게 된다. 다만 여기서 현대국어의 ‘혹 혹’가 준말이 되어 생성된 ‘골혹’이 된 것 같은 ‘골혹’의 예는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 여기서는 ‘혹 혹’의 예를 다음 (5)에 제시한다

(5) 근대국어 첩용부사 ‘혹 혹’의 예

(가) 거믈 장에 기름을 간장 쳐 그 우희 혹 혹 발나 고쳐 등탕하야(『규합총서』, 10b)

(나) 풀을 쓰물 만치 기야 체에 바타 혹 혹 쳐 뿌어(『규합총서』, 24b)

(다) 이 전물의 제 엄져 써서 혹 혹 드리면 속속히 누르느니(『규합총서』, 25a)

(라) 큰 스크시 담고 미화밥을 너허 혹 혹 무쳐 불근 손즈를 쏘 그리키 박으되(『규합총서』, 17a)

(마) 그르시 올니는 법은 7는 치로 쳐 올녀야 혹 혹 못느니(『규합총서』, 22b)

2. 근대국어 부사 ‘고로로(골오로)’의 구성

중세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골오로’는 근대국어 시기에 부사 ‘고로’(<골오)에 다시 ‘로’가 통합된 어형인데, 이 때의 ‘로’는 격조사 ‘로’¹⁷⁾와 형태가 똑같으나 부사형성에서 발견되는 보조사 ‘로’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먼저 그 몇 예를 다음 (6)에 제시한다

(6) 근대국어 부사 ‘고로로’의 예

- (가) 직로 다스려 히여곰 고로로 다키 고(『가례언해』 1, 43b)
- (나) 실과를 씨 겹질 버리고 호 더 밭오 쫓서히 고로로 너겨 몽터 썩을 밍글거나(『신간구활촬요 보유편』 20a)
- (다) 호 너 말과 지 너 말을 고로로 뒤져겨 섯겨 잡흔 돌덩이를 주어 내되(『신전자초방언해』, 3b)
- (라) 子孫이 衆多호되 嫡庶를 논호디 아니호고 고로로 스랑호미 蠡斯의 九十九子의 和緝흠과 窶단 말이라(『여사서』 4, 41a)
- (마) 고로로(均勻)(『동문유해』 하, 27a)
- (바) 그옥이 날오되 서리와 이슬이 고로로 베프읍고 형벌과 덕피 호 가지로 호르오니(『속명의록언해 차주』, 1b)
- (사) 신절이 업스른 역이라 황목 념의 이서 고로로 하늘이 맞디신 밭음을 어든 재 엇디 이 이시며(『천의소감언해 진천의소감 차주』 6a~6b)
- (아) 밤을 지와 선을허게 식혀 술맛을 부어 고로로 기야 정헌 독에 집불 쇠야 (『규합총서』, 3a)

근대국어 부사 ‘고로로’는 현대국어 부사 ‘골고루’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부 근대국어 자료에 ‘골오로’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곧, ‘긱브며 편안흠을 골오로 호야(『어제내훈』 2, 13a), ‘광탕지전을 베퍼 내 피잔호 빅성으로 호여곰 골오로 헤틱을 적시지 못호게 호면’(『윤음언해 어제왕세죽칙네후 각도 신군포절반 탕감윤음』 4b)

17) 유창돈은 조격조사 ‘로’에 대하여 자료격·목적격·방향격·변이격·자격격·축격등으로 의미에 따른 분류를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유창돈, 『이조어사전』(연세대학교 출판부, 1964), 276~277 쪽

등의 ‘골오로’가 그 예이다. 이것은 그 첫 음절 ‘골’의 받침 ‘ㄹ’이 둘째 음절 ‘오’에 연결되어 결국 ‘고로로’가 된 것으로 근대국어에서 그 빈도가 좀더 높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하간 ‘고로로’와 ‘골오로’에서 그 부사어간을 ‘고로’와 ‘골오’로 각각 다르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사형성 보조사 ‘로’가 통합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세국어의 파생부사 ‘골오’가 이미 부사로서 그 기능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어에서 부사 ‘고로(골오)’로 실현된 것 이외에 다시 부사형성의 보조사 ‘로’가 ‘고로’에 통합되어 ‘고로로’라는 또 다른 형식의 부사구가 실현되었다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부사 ‘고로(드물게는 ‘골오’)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잉여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사형성의 보조사 ‘로’를 다시 이 부사 ‘고로’에 통합시켰을까?

실제로 중세국어에서 부사형성의 보조사 ‘로’는 다음 (7)의 몇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행 성분에 통합되어 부사를 이룬 예들을 확인할 수 있다.

(7) 중세국어 부사형성의 보조사 ‘로’의 예

- (가) 五年을 改過문호야 虐政이 날로 더 을씨 (五年岡俊虐政日彌) (『용비어천가』, 제12장)
- (나) 아랫 位에 이서 次第로 經을 바들 제 (居下位以次受經) (『원각경언해서』, 8a)
- (다) 내 이를 위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덟 字를 밍그노니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 (『훈민정음언해』, 2a)
- (라) 실로는 倫理맞기 나며 (實則外於倫理) (『번역소학』 8, 40b)

(7)의 ‘날로, 次第로, 새로, 실로’ 등등에서 ‘날, 次第, 새, 실’ 등등이 각각 명사 또는 관형사라고 할 경우, 부사형성 보조사 ‘로’가 격조사 ‘로’처럼 역사적으로 곡용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그 전체가 부사 또는 부사구로 화석화되어 부사의 기능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조격조사 ‘로’가 명사구에 통합되어 그 명사구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의미가 자료격, 목적격, 방향격, 변이격, 자격격, 출격 등의 기능이나 의미를 나타낸

다고 하여도 부사 또는 부사구를 이루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로로’의 ‘고로’는 명사 또는 명사적 기능을 할 수도 있는 어떤 품사일까? 이와 같은 의문은 당연히 (7)의 예에서 체언 또는 역사적으로 곡용을 했던 관형사에 ‘로’가 통합되어 부사 또는 부사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근대국어 부사 ‘고로로’의 ‘고로’가 명사 또는 중세국어에서 곡용하던 관형사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유창돈¹⁸⁾처럼 ‘고로로’의 ‘로’를 격조사 ‘로’와 다르게 부사형성 보조사¹⁹⁾로 해석한다면 ‘고로로’의 생성원리는 비교적 간단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어의 보조사 ‘읽는, 도, 만, 부터’ 등등은 체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선행성분이 부사, 동사, 형용사 등에도 통합되어 선행성분의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로로’의 ‘로’를 부사형성의 보조사로 볼 경우 이 ‘로’는 ‘읽는, 도, 만, 부터’ 등과는 다르게 다른 의미를 추가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고로로’에서 ‘고로’ 그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다시 부사형성의 보조사 ‘로’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가 추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고로’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다시 ‘로’가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고로로’는 부사기능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고 ‘로’는 결국 잉여적 성분이라 할 수 있다.

국어에서 보조사 ‘읽는, 도, 만, 부터’ 등은 선행성분에 통합되면 단순한 격조사와 다르게 그 보조사가 가지는 의미, 곧 ‘읽는’은 ‘배제·대조’의 의미를, ‘도’는 ‘역사’의 의미를, ‘만’은 ‘유일’의 의미를, 그리고 ‘부터’는 ‘시발·시원’의 의미를 더 나타내는 데 반하여 ‘고로로’의 ‘로’는 부사 ‘고로’에 단지 그것이 다시 부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더 추가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8) 유창돈, 위의 책, 276~277쪽.

19) 부사 ‘세세, 초초, 때때(때때)’ 등에 다시 부사형성 보조사 ‘로’가 통합되어 부사를 이루는 예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곧, “楊播의 가문이 세세로 純厚하야(楊播家世世純厚)(『소학언해』 6, 69a), 초초로(轉傳)(『한청문감』 6, 69a), 초초로 죄를 감하고(『경민편언해』 22b), 소합원 아홉 환을 훔 병 술에 돕가 때때로 머그면(『벽운신방』 13a), 새 물을 때때로 먹교되(『마경초집언해』 상 39a)” 등이 그것이다.

3. 근대국어 형용사 어간 ‘고로-’ (<골오-)의 생성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파생부사 ‘골오’는 근대국어에서 ‘골’의 받침 ‘ㄹ’이 부사파생 접미사 ‘-오’에 연철 표기되어 ‘고로’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이 파생부사 ‘고로’는 부사에서 다시 형용사 어간으로 재조정된 예가 근대국어 문헌 자료에서 다수 확인된다. 우선 그 예를 다음 (8)에 제시한다.

(8) 근대국어 형용사 어간 ‘고로-’의 예

(가) 활용어미 ‘-게’와 통합된 예

1. 반드시 첫 봄의 침주어 혈기로 고로게 혀야 림우 성헝게 아니헝면(『마경초집언해』 상, 51a)
2. 그저 마장 석기틀 고로게 혀여 고디식이 버리고 두자(『박통사언해』 중 49b)
3. 더 삼썬을을다가 헝 번의 섯기틀 고로게 혀라(『박통사언해』 하, 56)
4. 썬 시슨 묏은 쓰믈로 반도글 심이 고로게 혀야(『신전자초방언해』, 18b)

(나) 활용어미 ‘-고’와 통합된 예

1. 곳 고기알길티 고로고 깃길헝거니와(『노걸대언해』 하, 56a)
2. 상해 좌우의 이셔 아츰 나죄 자실 거슬 고로고 뵈셔 약헝기틀 게을리 아니 헝더라 (常在左右晨夕調膳侍藥不怠)(『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 1, 72b)
3. 이 헝 가지 소흠 고로고 크니를 엇디 폴다(這一等花兒勻大的怎麼賣)(『박통사언해』, 29b)
4. 杭州 비단은 썬 실이 고로고 蘇州 비단은 엷고(『청어노걸대』 6, 11b)

(다) 활용어미 ‘-디(자)’와 통합된 예

1. 숨쉬기 고로디 아니 헝며(『마경초집언해』 상, 71b)
2. 괴운이 사오나와 치우며 더위 고로디 못헝여(『벽은신방』, 1a)
3. 숨쉬기 고로디 아니흠은 폐경이 알퐼이오(『마경초집언해』 상, 76b)
4. 이 헝나흔 실이 고로지 아니헝고(『청어노걸대』 8, 10a)

(라) 부동사 어미 ‘-아’와 통합된 예

이 곳흔 비 실은 골라 고기 알 곳치 죠코(『청어노걸대』 8, 10a)

(마) 관형사형 어미 ‘-니’과 통합된 예

1. 三物 섯거 고론 거시 아래 잇고(『가례언해』 8, 13b)

2. 모쪼록 가져 가마 안히 담아 평히 고론 후의(『신전자초방언해』, 11b)
 3. 石灰와 細沙와 黄土와 섞거 고론 이로 그 우희 퍼셔(『가례언해』 7, 23a)
- (바) 동명사형 어미 ‘-다’ 과 통합된 예
- 脈을 잡아 보니 平常하여 고로매 속이 3장 몯앗다(『청어노걸대』 7, 8b)

예 (8)에서 (가)의 예들은 형용사 어간 ‘고로-’에 부동사 활용어미 ‘-게’가, (나)의 예들은 부동사 활용어미 ‘-게’가, (나)의 예들은 부동사 활용어미 ‘-고’가, (다)의 예들은 역시 부동사 활용어미 ‘-다’가 통합된 것으로 이 형용사는 분명히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또 (8)-(라)의 예들은 어간 ‘고로-’에 부동사 어미 ‘-야’가 그리고 (8)-(마)의 예들은 어간 ‘고로-’에 관형사형 어미 ‘-니’이 통합되어 그것에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된 것이다. 또 (8)-(바)의 예 ‘고로매’는 형용사 어간 ‘고로-’에 동명사 어미 ‘-다’가 통합되고 여기에 다시 처격조사 ‘애’가 통합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는 (4)의 근대국어 부사 ‘고로’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근대국어에서 형용사 어간 ‘고로-’(均)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후기 중세국어에서 형용사 어간이었던 ‘고르’에 부사파생 접미사 ‘-오’가 통합됨으로써 생선된 부사 ‘골오’는 근대국어에서 ‘고로’로 교체되고 이 부사는 중세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에서 ‘-’가 ‘-’로 합류됨에 따라 ‘고르-’로 바뀜으로써²⁰⁾ 근대국어에서 ‘均·調’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어간 ‘고르-’, ‘고로-’와 같은 쌍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국어의 부사 ‘고로’는 그 어간 자체가 형용사 어간으로 재조정됨으로써 형용사 ‘고로다’를 생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록 품사는 다르지만 중세국어에서도 체언과 용언의 어간이 서로 일치하는 ‘빅’(腹), ‘빗’(梳), ‘너출’(蔓), ‘긷’(劃) 등의 명사에 대하여 ‘빅

20) 중세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均)와 그 의미가 ‘고르-’(調)로 약간 바뀐 듯하나, 근대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調)의 의미를 나타내는 몇몇 예를 다음에 제시한다

1. 기름을 덥게 달혀 고로게 골라 버르코 쏘 버르코 (以生油燒熱調勻搽之)(『마경초집언해』 하 112b)
2. 툇티 쫄개 반 잔에 혼디 골라 흘리라 (猪膽汁半盞同調灌之)(『마경초집언해』 하, 8a)
3. 싱강 혼 분과 드스혼 술 혼 되에 골라셔 흘리라 (薑一分溫酒一升調灌)(『마경초집언해』 하, 8a)

-'(腹), '빋-'(梳), '너출-'(蔓), '긋-'(劃) 등의 용언어간 등²¹⁾이 있어 이 형용사 어간 '고로-'(均)와 부사 '고로'는 같은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V. 현대국어 부사 '골고루'의 축약 원인

현대국어 첩용부사 '고루 고루'에서 첫 번째 '고루'가 줄어들어 '골'이 되고 이것이 후행의 '고루'에 연결됨으로써 '골고루'가 되었다는 것이 (1)-(나)와 (1)-(라)에 관련된 설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의 수많은 첩용부사들이 대체로 '골고루'처럼 준말로 되는 예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이런 준말이 첩용부사에서 규칙적으로 실현되는 언어현상이라면 다른 첩용부사들은 왜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휘의 변형이나 변화에 있어 그 변화의 규칙이나 양상은 그 어휘의 어휘특이적인(*lexico-specific*) 것으로, 그 규칙이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준말형식의 변화도 어휘특이적이어서 '고루 고루'가 '골고루'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어휘특이적인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부사가 첩용부사로 생성되고, 이것이 다시 '준말[융합형 *blending form*]'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휘특이적인 것으로 일단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첩용부사가 준말로 생성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준말이 생성되는 이유나 근거를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현대국어에서 '골고루' (←고루 고루)로 생성된 것에는 역사적으로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중세국어에서 형용사 어간 '고르-'에 부사파생 접미사 '-오'가 통합되어 생성된 부사 '골오'는 근대국어의 부사 '고로', 현대국어의 '고루'로 바뀌고, 이것들은 각각 첩용부사를 이루어 근대국어의 '고로 고로', 현대국어의 '고루 고루'가 되었는데, 전자는 '골오르(골고르)', 후자는 '골고루'가 되었다. 이와 같은 준말의 생성은 그 성격이 유사한 다른 파생부사에서는 그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세국어 동사어간 '맞-'(迎), '돌-'(廻), '굴푼-'(疊) 등등에서 부사 파생 접미사

21) 이기문, 앞의 책(1998), 156 쪽 참조

‘-오/우’에 따라 생성된 부사 ‘마조, 도로, 거꾸 등등은 그 첩용부사 ‘*마조마조, *도로 도로’는 그 생성 자체가 불가능한 듯하고 ‘거꾸 거꾸’는 “曹操 | 글상에 노코 거꾸 거꾸 열 번 남아 보고(『삼역총해』 6, 11a), 거꾸 거꾸(只管)(『한청문감』 6, 56a)” 등에서 확인되지만 이 첩용부사도 ‘고로’가 ‘골오로’, ‘고로로’ ‘골고루’ 등으로 실현되는 것과는 다르게 ‘*깁거꾸’로는 축약되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 첩용부사가 ‘골고루’(←고루 고루)처럼 준말 또는 축약형으로 실현되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 (9)와 같다.

(9) 현대국어 첩용부사의 준말(축약형) 예

- 가. 바리 바리→발바리(바리마다): 바리바리 신고 가다.
- 나. 가리 가리→갈가리(여러 가닥으로 찢어진 모양): 갈가리 찢어졌다.
- 다. 가지 가지로→갓가지로(‘가지 가지로’의 준말): 음식은 갓가지로 준비하였다.

(9)의 예들은 동형 반복의 첩용부사 가운데서 둘째 음절이 줄어들어 준말 또는 축약형을 이루는 몇 안 되는 예들 가운데 일부이다. ‘고루 고루’에서 ‘골고루’로 축약된 것과 같이, 제2음절의 모음 ‘ㅣ’가 탈락됨으로써 ‘발바리²²⁾, 갈가리, 갓가지로’ 등으로 축약된 것이 예 (9)라는 것이다

실제로 동형 반복의 예 ‘거리 거리(거리마다), 두루 두루(‘두루’의 힘줄말), 부리 부리(눈망울이 크고 담찬 기운이 있는 모양), 고래 고래(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르는 모양), 어리 어리(여러 가지가 모두 어리송한 모양), 오래 오래(아주 오래 지나도록), 미리 미리(‘미리’를 강조하는 말), 아슬 아슬(위태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두려운 상태), 호리 호리(몸이 가늘고 키가 커서 날씬한 모양), 마디 마디(마디마다), 시름 시름(병세가 더하지도 낫지도 않고 은근히 오래 끄는 모양), 야들 야들(윤이 나고 보들 보들한 모양), 아물 아물(작은 것이 보일 듯 말 듯하면서 자꾸 움직이는 모양), 우물 우물(입을 다문 채 입 안에 든 음식을 이리저리 천천히 씹는 모양)’ 등등의 동형 반복의 첩용부사들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준말’ ‘*깁

22) “소 바리 바리(바리마다)에 짐을 실었다”의 예문에서 첩용명사 ‘바리바리’는 ‘준말’이 되어 ‘발바리’로 쓰인다. 그런데 이 축약 명사 ‘발바리’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

거리, *둘두루, *불부리, *골고래, *얼어리, *올오래, *밀미리, *앗아슬, *홀호리, *만마디, *실시름, *안야들, *암아물, *움우물' 등으로 축약되지 않는다

특히 동형 반복의 첩용부사들은 그 어휘의 어휘특이성(lexico-specificity) 때문에 똑같은 음운 (또는 음성)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축약형(준말) '골고루(←고루 고루), 갈가리(←가리 가리)' 등을 생성시킬 수 있는 반면에 '*둘두루(←두루 두루), *불부리(←부리 부리), *얼어리(←어리 어리)' 처럼 그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골고루'를 비롯한 '발바리(←바리 바리), 갈가리(←가리 가리), 갓가지(←가지 가지)' 등등은 본래 형용사 어간 '고르'(均), '밭'(個澗), '갓(枝)' 등에 부사파생 접미사 '-오', 명사파생 접미사 '-이' 등에 따라 파생된 어휘 '골오, 바리, 가지' 등이 반복되어 생성된 파생부사 '고로 고로, 바리 바리, 가지 가지'에서 그 제2음절이 축약된 준말인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가 훨씬 많지만 이 경우 축약되는 제2음절의 모음은 그 기능에 있어 모두 접미사라는 한정성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음운론적 조건 등이 거의 동일하나 접미사가 관여하지 않은 어휘가 첩용부사로 쓰이는 '서로 서로', '바로 바로', '거리 거리', '우리 으라' 등등은 절대로 '*설서로, *발바로, *결거리, *올우리' 등으로 축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동형반복의 첩용부사가 '준말 또는 축약형의 어휘로 생성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 선대형이나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국어의 '고루 고루(<고로 고로)의 경우, 이것이 '골고루'로 축약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골오로' (『어제내훈』 2, 13a; 『운음언해 어제왕세주 칙내후 각도신군포절반탕감운음』, 4b), '고로로' (『가례언해』 1, 43b; 『신간구황촬요보유편』, 20a; 『동문유해』 하 27a 등) 등과 같은 고행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모든 어휘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9)의 (가), (나)로 제시한 '발바리'(<바리 바리), '갈가리'(<가리 가리) 등은 그 문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9)-(다)의 '갓가지로'는 근대국어에서 '갓가지'는 "갓갓지(樣樣)"(『한청문감』 8, 56b)로 확인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국어의 동형반복으로 생성된 첩용부사가 '준말 또는 '축약형 어휘'를 생성할 수 있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 (10)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현대국어 동형반복의 첩용부사가 준말이 될 수 있는 조건

(가) 축약되는 제2음절의 문법요소는 접미사이다

(나) 축약된 제1음절은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선대형(先代型)은 역사적으로 문중될 수 있다.

VI. 맺음말

공시적으로 현대국어의 부사 ‘골고루’는 현대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均)’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부사는 어간 ‘고르-’에 부사파생 접미사 ‘-우’가 결합된 파생부사로 ‘고루’가 동형반복(同形反復)의 부사 ‘고루고루’를 생성하고, 이것에서 둘째 음절이 축약된 ‘준말’이다.

이러한 준말 부사 ‘골고루’는 역사적으로 동일형식의 부사를 가지고 있다. 곧, 중세국어 형용사 어간 ‘고르-’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통합됨으로써 파생부사 ‘골오’를 생성하게 된다. 이 파생부사 ‘골오’는 중세국어의 또다른 파생부사 ‘도로’(‘돌- 廻), ‘나소’(‘낚- 進), ‘오으로’(오을- 畵), ‘기우루’(기을- 畵) 등과 같은 형식으로 파생된 것이다.

중세국어 파생부사 ‘골오’는 근대국어에서 첫음절의 받침 ‘ㄹ’이 후행 음절인 ‘오’에 연철표기됨으로써 ‘고로’로 변하게 되고, 이것이 동형반복의 첩용부사 ‘고로고로’로 생성된다. 그런데 이 첩용부사 ‘고로고로’는 아주 드물게 ‘골오로’로 흔히는 ‘고로로’로 실현되어 마치 현대국어의 ‘준말’을 이룬 것 같은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로로’(드물게 ‘골오로’)는 파생부사 ‘고로’에 부사형 보조사 ‘로’가 통합된 것으로 해석하여 잉여적 현상으로 생각한다. 곧, 이미 ‘고로’는 부사인데, 이것에 다시 부사형성 보조사 ‘로’가 통합되어 다시 부사를 이루게 되므로 이 현상은 잉여적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날로’, ‘새로’, ‘실로’ 등의 예에서 ‘로’가 바로 부사형성 보조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국어의 축약형 ‘골고루’는 근대국어에서 ‘고로로’(드물게 ‘골오로’)로

실현되어 그 형식이 유사하나 내적으로 그 구성형식이 다르다.

중세국어에서 파생된 부사 ‘골오’는 근대국어에서 ‘고로’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부사는 근대국어에서 형용사 어간 ‘고로’로 어휘 재구조화된다

실제로 근대국어 문헌자료에서 형용사 어간 ‘고로’에 부동사 어미 ‘-게, -고, -디’와 관형사형 어미 ‘-니’ 등이 통합된 예들이 확인된다. 곧 ‘고로게 하여, 고로게 하라, 고로고, 고로디, 고로니’ 등등의 예들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국어에서 동형반복의 첩용부사 ‘고로 고로’가 축약형 ‘골고루’로 실현될 수 있는 원인은 역사적으로 ‘골’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중세국어에서 ‘고로’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통합됨으로써 ‘골오’가 생성되어 ‘골’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대국어의 부사 ‘고루 고루’가 축약되어 ‘골고루’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유사한 예로 현대국어 ‘가지 가지로’가 축약형 부사 ‘갖가지로’로 생성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세국어의 ‘갓갓자’에서 ‘가자 가’ ‘갓’으로 축약된 것을 더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현대국어 파생 첩용부사 ‘고루 고루’의 준말인 ‘골고루’의 어휘사를 과정별로 제시하면 다음 (11)과 같다.

(11) ‘골고루’의 변화과정

- (가) 중세국어 형용사 어간 ‘고로’ + 부사파생 접미사 ‘-오’의 통합: ‘골오’
- (나) 근대국어에서 ‘골오’의 연철 표기: ‘고로’
- (다) 근대국어 동형반복의 파생부사: ‘고로 고로’
- (라) 근대국어 파생부사 ‘고로’에 부사형성 보조사 ‘로’의 통합: ‘고로로’
(골오로)
- (마) 근대국어 ‘고로’에서 제 2음절의 ‘고>기’에 따라 현대국어 부사 형성: ‘고루’
- (바) 현대국어 동형반복의 부사: ‘고루 고루’
- (사) 현대국어 동형반복 부사의 준말: ‘골고루’

참고문헌

고영근,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개정판). 서울: 집문당, 1997.

- 안병희, 「문법사」, 『한국문화사대계 V 언어문학사』,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167~216 쪽
-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 문법론』, 서울: 학연사, 1991.
- 유창돈, 『이조어사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4.
- 이광호, 「후음 ‘ㅇ’과 중세국어 분출표기의 신해석」, 『소곡남풍현선생회갑기념논총』, 서울: 태학사, 1995.
- 이기문, 『국어음운사연구』, 서울: 탑출판사, 1980·1990.
- 이기문(감수), 『동아 새 국어 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9.
- 이기문, 『신정 국어사개설』, 서울: 태학사, 1998.
- 이병근, 『어휘사』, 서울: 태학사, 2004.
- 이승녕, 『중세국어문법: 15세기어를 주로하여』, 서울: 을유문화사, 1981.

● 투고일 : 2005. 7. 4.

● 심사완료일 : 2005. 8. 26.

● 주제어(keyword) : 부사(adverb), 형용사(adjective), 형용사 어간(adjective stem),
파생부사(derivational suffix), 교체어간(alternative stem),
파생부사(derivational adverb), 어휘특이적(lexico-specific),
어휘사(lexical history)